
재정 관련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16. 1.

재정 관련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I. 출장개요

- 목 적 : 방송통신 유관기관의 재원 조성, 재정 운용 등 절차·업무를 파악하여 재정 분야 글로벌 안목 제고 및 행정 능력 배양
- 기 간 : 2015. 12. 6.(일) ~ 12. 13.(일), 6박 8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영국(런던), 독일(프랑크푸르트)

구분	정부기관 및 방송사	기타기관
영국	① Media Reform Coalition (미디어개혁연합)	① Morningstar(투자회사) ② 미래에셋 영국법인 ③ 주영국 한국문화원 ④ FinTech Connect Live 2015 (핀테크 관련 컨퍼런스)
독일	① Hessischer Rundfunk(헤센주방송국) ② Stadtkaemmerei, Stadt Frankfurt am Main (프랑크푸르트 시의회 재정행정부)	① Koeln Media Park (켈른 미디어 파크)

○ 출장자

구분	부 서	직 급	성 명
1	방송기반국	고위공무원	김 재 영
2	기획조정실	서기관	이 동 석
3		주무관	박 종 현
4		주무관	박 정 은
5	방송정책국	주무관	이 창 하
6		주무관	권 순 호
7	이용자정책국	주무관	이 경 은
8	방송기반국	사무관	조 근 실
9		주무관	왕 경 희
10	운영지원과	사무관	이 혜 련
11		주무관	한 효 순

○ 주요일정

일 자	시 간	방문기관	주요사항
12.6.(일)	14:30~17:50	이동	인천→런던
12.7.(월)	10:00~12:00	Morningstar(모닝스타)	장소 : 모닝스타 런던지사 참석 : Jakie Beard 연구원 등 4명 논의 : 자금 운용 및 관리 등
	15:00~18:00	Media Reform Coalition (미디어개혁연합), Westminster Open Meeting (웨스트민스터 공개회의)	장소 : 런던대학 및 영국 국회의사당 참석 : Justin Schlosberg 교수 등 2명 논의 : 미디어 소유권 등
12.8.(화)	10:00~12:00	FinTech Connect Live 2015 (핀테크 관련 컨퍼런스)	장소 : 웹블리 스타디움 주제 I : 디지털시대의 자금운용조달 주제 II : 가상통화 관련 이슈, 정책
	15:00~17:00	미래에셋 영국법인	장소 : 미래에셋 영국법인 참석 : 김영환 상무 논의 : 유럽경제전망, 재정운용방식 등
12.9.(수)	10:00~12:00	주영국 한국문화원	장소 : 주영국 한국문화원 참석 : 김갑수 한국문화원장 등 2명 주제 :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
	15:00~17:00	FinTech Connect Live 2015(계속) (핀테크 관련 컨퍼런스)	주제 III : 핀테크 혁신
12.10.(목)	8:30 ~11:05	이동	런던→프랑크푸르트
	15:00~17:00	Hessischer Rundfunk (헤센주 방송국)	장소 : 헤센주 방송국 참석 : Sebastian 홍보실 과장 논의 : 공영방송제도, 방송재정운영 등
12.11.(금)	10:00~12:00	Stadtkaemmerei, Stadt Frankfurt am Main (프랑크푸르트 시청 재정국)	장소 : 프랑크푸르트 시청 참석 : Thomas Rautenberg 국장 논의 : 재정조달 및 운영, 주요사업 등
	15:00~18:00	이동	프랑크푸르트→켈른
12.12.(토) ~13.(일)	10:00~11:00	Koeln Media Park (켈른 미디어 파크)	장소 : 쾰른 미디어 파크 주제 : 미디어 산업·기술 동향 파악
	18:30~12:40	이동	프랑크푸르트→인천

II. 출장내용

1. Morningstar London Office

가. 개 요

- o 방문일시 : '15. 12. 7.(월) 10:00~12:00
- o 방문기관 : Morningstar London Office
- o 주 소 : Morningstar UK, 1 Oliver's Yard 55-71 City Road
- o 면 담 자 : Jackie Beard, Christopher Traulsen 등 4명
 - Director of Manager Research Services, Manager Research_Asia Pacific
 - 이메일/연락처 : jackie.beard@morningstar.com/+44 (0)77 8657 5376
- o 주요내용
 - 모닝스타 런던지사의 펀드전략 선택 및 자산배분 전략 파악
 - 글로벌 자산배분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기금의 자산배분 등 벤치마킹

나. 방문 결과

- o 모닝스타 소개 및 자산운용 실태
 - (모닝스타 소개 및 글로벌 운용 현황) 모닝스타는 글로벌 투자 정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26개국 이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세계에 걸쳐 자산배분, 펀드평가, 성과평가 등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정보 제공회사 임

- (펀드선택 프로세스) 자산배분 전략 및 펀드선택 등 우리기금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Qualitative Research: The Five Pillars				
People	Process	Parent	Performance	Price
○ 경험과 퀄리티 ○ 경력 ○ 연속성 ○ 투자의 일관성	○ 증권 선택기법 ○ 평가 역량 ○ 포트폴리오 구성 ○ 위험관리	○ 지배구조 모기업 ○ 재무 안정성 ○ 기업문화 ○ 규정 준수	○ 벤치마크 대비 성과 ○ 통계	○ 동일유형 대비 수수료율

- (자산배분 방법) 자산배분 모델은 직관성과 이론성, 유동성에 기여해야 하며, 자산배분을 위해 3~5년 수익과 위험을 예측하고, 장기(10~20년) 데이터를 블랙리더만(Black Litterman)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 및 답변

- 글로벌 저금리 시대의 기금운용의 전략적 투자방안은 무엇인지?
 - ☞ 저금리로 수익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임으로 다양한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시장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 아시아 금융시장의 현황 및 전망과 향후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계획은?
 - ☞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과 파급력은 이미 금융시장의 흐름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과 자금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임
- '16년 모닝스타에서 생각하는 전략적 자산배분과 체계적 자산운용 방법은?

-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국가 기금으로 투자기관 선정시 효율성 및 공정성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며,

적정 유동성 규모에 따른 단기, 중장기자금의 배분과 중장기 투자 가능한 자금에 대해 투자기간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시장금리가 낮아진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운용계획의 자산배분 기준 및 실적 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소폭 확대하는 등 향후 효과적인 자산운용방향을 전망하고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 특이사항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MorningStar London Office 방문사진 >

	
MorningStar London office 회의실	회의 후 기념촬영

2. Media Reform Coalition

가. 개 요

- o 방문일시 : '15. 12. 7.(월) 15:00~18:00
- o 방문기관 : Media Reform Coalition
 - 기관개요 : 미디어 다원주의, 윤리적 저널리즘, 지역 언론형성의 개혁을 위한 독립적 비 정부기관
- o 주 소 : Room 309, 43 Gordon Square, London WC1H 0PD
- o 면 담 자 : Dr Justin Schlosberg, Prof Des Freedman 등 2명
 - Media Reform Coalition 회장, 런던대 저널리즘 & 미디어학 교수
 - 이메일/연락처 : j.schlosberg@bbk.ac.uk/+44 (0)20 7631 6185
- o 주요내용
 - 영국의 미디어산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을 가진 후, 영국의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여 미디어개혁연합(Media Reform Coalition)에서 개최하는 Westminster Open Meeting에 참석하여 미디어 관련 법령 입안 절차 등 논의 방청

나. 방문 결과

- o 미디어개혁연합 소개
 - 미디어개혁연합은 폰해킹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미디어 공정성·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규제나 법률 제정과 관련한 연구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미디어개혁연합은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여러 시민단체나 자선단체 등 파트너 단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런던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지난 5년 동안 추진·논의 되어온 미디어 관련 규제 등의 정책을 국회에 제안할 계획임(방통위 방문 당일 국회의사당에서 Westminster Open Meeting 주최)

o 미디어 관련 규제 등 정책제안 주요 내용 : 붙임 참조

o 질의 및 답변

- 미디어 개혁 연합은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 ☞ 본 단체는 런던대학 연합에 속해 있지만 재정적으로는 자선단체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등 독립되어 있음
- 영국에도 시청점유율 및 방송시장 등 방송관련 제한 규정이 있는지?
 - ☞ '99년 방송법 개정으로 관련 제한들이 생겼으며, CH.3가 가장 상업적인 방송으로 미디어통폐합을 관리하는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 20% 지분소유 제한이 있으며, 방송은 20%를 넘어도 문제가 없지만, 신문의 경우 20% 제한을 받고 있음. 영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미디어에 관하여 더욱 상업적이 측면이 강함
- 미디어 소유권 관련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없는지?
 - ☞ 영국은 전통적으로 전파의 희소성에 근거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을 규제 및 유도해왔으며, 이는 시장경제 원리보다는 규제와 제한을 통해서 미디어의 독과점 시장을 유지해오는 경직된 구조를 만드는 요인이 되었음
 - ☞ 방송법 개정으로 상업적인 부분이 많이 해소되어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며, 소유권 20%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있음

-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가 케이블TV(방송)까지 잠식하고 있는 사례가 영국에 있는지?

☞ 영국에는 브로드밴드 사업자, IPTV사업자 등이 있지만, 프리뷰 시스템에 따라 통신사가 방송사업에 진입하는 데에는 많은 규제가 있음

☞ Sky Sports가 EPL 중계를 하고 있지만, Ofcom에서 자율 경쟁 체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함

- OTT(Over the Top) 서비스와 관련하여 영국 현황은 어떤지?

☞ 아직은 OTT 서비스가 진화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OTT 사업자에 대한 기본 규제 프레임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진화가 향후 방송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임

- 미디어 소유 관련 부작용 사례는?

☞ 미디어 다양성만 풀어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 2011년 방송국과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는 머독그룹에 의한 폰해킹 스캔들(해킹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보도)이 발생함

- 한국에서는 현재 통신사의 케이블방송사 인수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통신산업이나 방송산업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관련 사업에 진입하기 어려우며, 이 부분과 관련하여 Ofcom(방송통신 규제위원회)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음

☞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인 Ofcom에서는 미디어 정책을 정기적으로 입안하지만 평가, 미래 미디어에 대한 리뷰(개발, 발전, 방향제시 등)는 없음

o 시사점

- 시청점유율에 대한 제한이 없는 등 미디어산업과 관련하여 상업적인 접근이 강함
- 미디어개혁연합의 경우 정부나 기업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되어있는 비 정부기관으로서 미디어의 공정성·다양성을 추구하는 규제나 법률 제정과 관련한 연구 및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o 특이사항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Media Reform Coalition 방문 사진 >

	
Media Reform Coalition 회의실	영국 국회의사당

□ 미디어 다원성 초안 : 소개

다음은 정책 제정자들, 시민사회그룹, 상업적 주주, 일반 시민들이 논쟁과 토론의 시작점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대법관, OFCOM,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추천하는대로 정기적인 미디어 다원성 검토를 위한 입법 프레임을 제공하는 의도이다. 이와같이, 이 법안은 미디어합병(커뮤니케이션법 2013, 기업법 2002에 포함된)에 대한 공공이익 테스트와 기존의 조항들과 함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초안은 적절한 다원성에 따라 OFCOM이 제안한 프레임에 따르면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미디어 시장의 동적인 성격과 복잡 환경에 따라 적절한 보조장치와 규제 범위를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명백히 정의된 규정’의 개념 소개로 케이스별로 유연한 결정을 허용하며 OFCOM 또는 장관의 재량권을 최소화한다.

전체 법안은 대형 미디어 소유자의 보호책과 보상책의 미디어 다원성과 지역 저널리즘의 도움을 통한 다원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상향식 조치, 두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는 미디어 합병에 대해 현존하는 공공이익 테스트 조항의 개정을 소개한다.

part 1. 미디어 다원성 보호

서비스 제공자 정의

1. 콘텐츠 제공자

- (1) 콘텐츠 제공자는 뉴스 콘텐츠의 편집권을 가진 개인 또는 독립체로 간주된다.
 - a. 편집권은 소비의 마지막 단계에서 뉴스의 범위와 성질을 정하는 능력이다.
 - b. 뉴스 콘텐츠는 언론 보도와 특집 기사를 말한다. 이는 매일 배포 또는 제공된다. 시사 토픽을 포함한다. 배포된다는 의미는 공공에게 또는 공공의 일부에게 무료로 또는 일정금액 지불로 사용 가능하게 하거나 계속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2) 대량뉴스제공자는 소규모의 뉴스를 제공하는 모든 독립체를 포함한다.
 - a. 소규모의 뉴스 제공이 대규모 뉴스 제공의 전달일 경우, 편집권은 대규모 뉴스 제공자에게 있다.
- (3) 소규모 뉴스의 제공은 소비를 위해 공공 또는 공공의 일부에게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독립체를 포함한다.(무료 또는 금액 지불에 상관없이)

- a. 소규모의 뉴스 제공이 여러 다양한 대규모 제공자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경우 편집권은 소규모 뉴스 제공자에게 있다.

2. 콘텐츠 중개인

- (1) 콘텐츠 중개인은 주로 직접 소비자에게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독립체이며 원래의 뉴스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종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a. 검색 엔진
- b.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 c.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 d. 콘텐츠 공유 플랫폼

미디어 다원성 평가

3. 소유권의 다원성 조사 의무

- (1) OFCOM은 최소 4년마다 뉴스 시장에서 다원성 검토를 한다.
- (2) 다원성 검토의 목적은 뉴스 미디어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범위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 a. 다양한 관점의 폭넓은 범위에서 오는 뉴스 콘텐츠를 가진 일반대중에게 알려진 원칙, 일관성
 - b. 미디어 소유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저항(위의 S3(2)와 일치)
 - c. 공공의 이익

4. 데이터 입력

- (1) 다원성 검토에서, OFCOM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지표의 범위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 a. 표준 산업 측정 데이터
 - b. OFCOM에 의해 위임을 받거나 추가적인 맞춤 연구
 - c. 7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콘텐츠 제공자 또는 디지털 중개인에 의해 제공된 온라인 사용자 데이터

5. 3단계의 충분한 테스트

- (1) 다원성 검토 부분에서 OFCOM은 아래의 단계를 포함하는 다원성 테스트를 요구한다.
 - a. 상당한 힘을 행사할 콘텐츠 제공자와 중개인의 신원 확인
 - b. 8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다원성 보호책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힘이 있는 콘텐츠 제공자의 결정
 - c. 시장 집종의 구체적인 분야와 교차사용이 가능한 플랫폼 수준의 측정

영향력 결정

6. 상당한 영향력의 의미

- (1) 콘텐츠 제공자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a. 라디오, TV, 신문 등을 통해 청중에게 도달하거나
 - b. 특정 달(month)에 유일한(고유한, 정해진) 온라인 사용자의 주의를 끌거나
- (2) 특정한 달에 유일한(고유한, 정해진) 사용자보다 더 주의를 끄는 것으로 콘텐츠 중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공개 요구

- (1) S6(1), 6(2)에 규정된 한도의 50% 이상에 도달하는 모든 콘텐츠 제공자들은 분기별로 온라인 트래픽 데이터를 OFCOM에게 제출해야한다. 비공개로, 다원성 검토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 데이터는 OFCOM이 정한 양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8. 보고 의무

- (1) s3(1)에 따른 다원성 검토 시작에 따라, OFCOM은 12월 이내에 의회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9. 다원성 보호책

- (1) 콘텐츠 제공자는 상당한 목소리의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OFCOM은 다원성 보호책을 시행해야한다. 소유자, 외부소스에 의한 간섭에서부터 언론인과 편집인의 편집 자치권을 보호한다.
- (2) 8(1)에 대해 안전책의 적용범위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 a. 언론인의 교대로 돌아가는 패널로 구성된 독립적인 편집 이사회 임명, 이에는 주요한 편집 직책과 결정 책임이 따른다.
 - b. 독립적인 이사회 임원 임명 (이에는 주요한 편집 직책과 결정 책임이 따른다)
 - c. 언론인 중 주주 의결권 비율의 재배치
- (3) 안전책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OFCOM은 전후 사정과 관련된 기준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래를 포함하지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 a. (뉴스 방송의 경우) 공공 서비스 또는 방송 라이선싱 조건의 일환으로 구성된 현존하는 내부 다원성 요구사항의 정도
 - b. (뉴스 제공자의 경우) 칙허장(Royal Charter)에 따른 자율규제원칙에 따라 콘텐츠 제공자가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c. 신뢰하거나 또는 협력적인 구조를 포함하고 내부 다원성과 편집 자치권을 증대시키는 통치방식의 현존 양식
- (4) s9의 목적에 따라, ‘독립적인’의 의미는 개인이 공개된 기준에 따라 선발된 위치에 임명된 개인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 a. 독립적인 편집 권한 행사
 - b. 충분한 조치는 콘텐츠 제공자의 능력을 제한(제거하기 위해)하고 관계된 결정에

영향을 준다.

c. 편집권한 행사시 s3(2)와 관련 있는지 확인

d. 고용 또는 서비스 계약은 독립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10. 다원성 개선책

(1) s5(1)c에서 설정한 분야에 따라다원성 검토의 일부로서 OFCOM은 뉴스 시장 집중도 측정이 요구된다.

(2) 시장 점유율 측정시 OFCOM은 tv, 라디오, 신문, 온라인부분 모두를 포함한다.

(3) 시장 점유율 측정시 OFCOM은 아래의 소비 지표에 따라야 한다.

a. 분야 내에서는 산업 표준 측정 체계를 따른다.

b. 분야를 초월하는 부분에서는 맞춤형 소비자 조사는 콘텐츠 제공자의 시장 영향력을 측정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11. 통제의 의미

(1) 개인은 만약 아래에 해당할지 콘텐츠 제공자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a.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b.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거나

c. 통제권 배치의 부분이거나

(2) 대부분은 지분의 50% 이상 소유한 개인이나 주주의 의결권에 의해 정해진다.

a. 대부분의 지분은 회사에 의해 유지되며, 이는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의결권을 가진 개인에게 기인한다.

(3) 대다수의 지분이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회사가 통제를 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특정범위로 한정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a. 콘텐츠 제공자는 대출 또는 제3자에 의존하여 직접 자금 준비를 하는 경우

b. 광고주를 포함하여 공급업체 또는 제3자 등 의존적인 관계

(4) 통제권이 개인에게 기인할 수 없는 경우, OFCOM은 제어장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시장 점유율은 둘 또는 다수에 있는 것으로 된다.

(5) 통제권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 공공 또는 다원적 소유구조에서, 시장점유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있다.

12. 한계와 개선책

(1) 통제권을 통해 개인 또는 그룹이 2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면, OFCOM은 소유권의 집중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구조 개선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a. 강제 매각

b. 자본 카브아웃

c. 주주 희석화(가치하락)

- (2) 어떤 개선책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OFCOM은 전후사정과 관련된 기준범위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 a. 8조의 규정에 따른 기존 다원성 보호책
 - b. 공공 서비스 의무
 - c. 공공, 협력, 또는 다원성 소유 구조

Part 2 : 미디어 다원성 촉진

미디어 다원성 위탁

13. 임명 및 기능

- (1) 미디어 다원성 위탁은 미디어 다원성을 촉진하는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기능을 확립하는 것이다.
- (2) 4년마다 열린 입찰을 통해 OFCOM에 의해 5명의 위원을 배치해야 한다.
- (3) 임명 기준은 적절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관점의 대표성에 근거해야 한다.
- (4) 14조항에 따라 기본 기능은 정보수집, 관리, 지원을 위한 자금 관리이다.
- (5) 시장에 비영리 뉴스 창업을 위해 보조 기능은 자원을 개발하고 자문, 지원하는 것이다.

14. 미디어 다원성 추가 부담금

- (1) 위탁(위탁사업체)는 s6(1), 6(2)에 따라 순이익에서 추가 부담금 2 퍼센트를 분담해야 한다.
- (2) 위탁사업체의 운영을 돕기위해 부담금이 사용된다. 관리 비용의 제한은 OFCOM 이 한다.
- (3) 잉여 자금은 독립적인 비영리 뉴스 사업을 통해 사용되어야 한다. 다원성 촉진을 목적으로 다른 펀딩이 이뤄질 수 있다.
- (4) 인상분의 기준은 수익성있는 미디어의 재분배에서 기초한다.

3. 미래에셋 영국법인

가. 개 요

- o 방문일시 : '15. 12. 8.(화), 15:00~17:00
- o 방문기관 : 미래에셋 영국법인
 - 2007년에 설립된 미래에셋 영국법인은 US\$75.8billion(약 80조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영사로 주로 유럽시장에 아시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o 주 소 : 4-6 Royal Exchange Buildings, London, EC3V 3NL
- o 면 담 자 : 김영환 상무(Managing Director)
 - 이메일/연락처 : youngkim@miraeasset.com/+44 (0)20 7715 9931
- o 주요내용
 - 유로존 경제현황 및 미래에셋의 자산운영 현황
 - 공적자금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자문

나. 방문 결과

- o 미래에셋 영국법인의 국제경제 상황인식 및 자산운영 전략
 - (글로벌 경제상황) 2015년 경제환경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의 경제가 확신을 주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국의 성장률 저하, 원자재가 하락등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음. 유로존의 경우 2012년 재정위기를 겪은 이후 반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급격한 성장세를 전망하기는 어려움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은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의 종료라는 상징적 의미를 제시하며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소폭의 경제성장을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

- (유럽에서의 아시아 상품에 대한 견해) 투자수익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시아 소비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관심은 높은 편이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님.

영국법인에서는 주로 중국의 소비문화와 한국의 한류상품을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음

- (미래에셋의 자산운영 전략) 2007년도에는 전체 자산의 60~70% 정도를 증권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증권·채권·ETF¹⁾s·부동산 등에 자산을 배분·운영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방발기금의 운영 방향)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수입원이 방송과 통신 분야로 제한적이며 수입에 맞추어 지출하는 구조로 기금의 20%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국민연금 등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자금의 경우는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도입하여 투자하여야 하나, 방발기금의 경우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상품으로는 혼합형 투자 상품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하며, 또한 현재 원화상승 개선여지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 분야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판단됨

1) ETF (Exchange Traded Funds) : KOSPI200, KOSPI50과 같은 특정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

○ 질의 및 답변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금융성 기금 및 연금성 기금과 다른 사업성 기금으로,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적의 운용패러다임에 대한 견해는?

☞ 저성장, 저소비, 저출생, 높은 실업률, 규제 강화 등 대한민국 경제위기와 함께 세계경제에 뉴노멀 주의(New-normal)시대가 도래하였음

자산운용의 기본방향을 미래 현금흐름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적정유동성의 확보와 과도한 단기자금 보유로 인한 손실의 최소화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 2016년 미래에셋에서 예측하는 국내 금융시장 전망은?

☞ 국내 증시는 금리하락의 영향으로 평가상 저평가가 지속되는 상태가 예측되며, 기억이익 둔화 우려로 인해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됨
대외요인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유럽과 일본의 유동성 공급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높아질 전망
다만,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지속은 국내 경쟁 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연결되어 국내 증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시사점

- 국가 기금의 성격상 공격적인 투자전략 보다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성장의 흐름이 회복세로 전망되는 만큼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좀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금운영상 거치는 3개의 위원회(자산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하여도 간소화하여 경제 흐름에 따른 유동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o 특이사항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미래에셋 방문 사진 >



미래에셋 런던지사



미래에셋 회의실

4. 주영국 한국문화원

가. 개 요

- 일 시 : '15. 12. 9.(수), 10:00~12:00
- 방문기관 : 주영국 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Centre UK)
 - 한국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문화홍보원(KCIS)의 산하 기관으로 현재 24개국에 28개의 한국문화원을 운영중에 있음
 - 주영국 한국문화원은 2008. 1월 런던의 중심지인 트라팔가 광장 인근에 개소하였으며, 연중 다양한 한국문화행사²⁾를 기획하여 한국문화의 홍보와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음
- 주 소 : Grand Buildings 1-3 Strand, London WC2N 5BW
- 면 담 자 : 김갑수 주영국 한국문화원장 등 2명
 - 이메일/연락처 : +44(0)20-7004-2600 / info@kccuk.org.uk
- 주요내용
 - 문화원 방문을 통해 한국과 영국간 영화·IT·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의 이해와 우호 증진을 통한 영국내 親韓 이미지 제고 체험

나. 방문 결과

- 주영국 한국문화원 주요활동 내역
 - (한국문화의 인지도)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K-POP, 불고기, 드라마 등 인기 있는 한류콘텐츠

2) 전시, 공연, 영화, k-pop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등에서 음식, 한국어, 서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패션, 미술, 전통문화, 한국어 등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영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한국문화원의 활동) 주기적으로 영화제, 음악축제를 기획하여 한국의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웹툰, 패션, 음식, 전통음악 및 전통놀이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London Korea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음

또한, 행사뿐만 아니라, K-POP아카데미, 한국어·가야금·조각보·서예강좌, 불고기·김치·삼계탕·비빔밥 등 한국음식 강좌 등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영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사업운영방식)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부분 현지의 기업등과 함께 협업하여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을 받고 있음
- (한류콘텐츠의 유통현황) 한류 콘텐츠의 비중이 K-POP에서 한국 드라마로 이동되는 추세이나 한국드라마는 영국의 케이블 등 방송을 통해 유통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형태를 보임

o 질의 및 답변

- 주영국 한국문화원이 런던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와 현황은?

☞ 주영 한국문화원은 런던의 중심이라 일컬어지는 트라팔가 광장 인근에 위치하여 각종 전시와 공연, 그리고 영화제 이외 많은 한류콘텐츠를 영국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연중 다양한 한국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한국문화를 영국에 알리고 영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한국을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국가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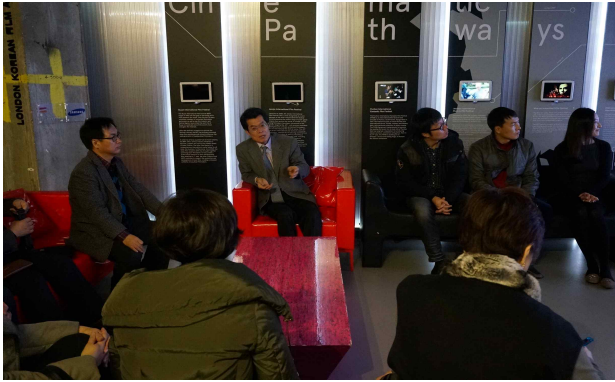
○ 시사점

- 한국 드라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영국 방송사를 통한 송출 등으로 유통구조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드라마 속 간접 광고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효과도 도출할 수 있도록 드라마 제작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이사항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주영국 한국문화원 방문 사진 >

	
주영국 한국문화원 소개	주영국 한국문화원

5. Fintech Connect Live 2015

가. 개 요

- o 참여일자 : '15. 12. 8.(화)~9.(수)
- o 참석행사 : Fintech Connect Live 2015
- o 장 소 : Wembley Stadium
- o 면 담 자 : Tom Spring(Community Manager),
Laxmi Panchal(Operations Manager)
 - 이메일/연락처 : tom.spring@fintechconnect.com, +44 (0)20 7368 9860
laxmi.panchal@fintechconnect.com, +44 (0)20 7368 9750
- o 주요 활동 : 기조 연설(Finance the digital age) 참관 및 전시장 방문 등
- o 컨퍼런스 개요
 - (행사목적) Fintech 관련 금융 기관과 스타트업 기업간 혁신과 성장을 위한 콜라보레이션과 디지털 결제 생태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전략과 시장 전망
 - (설립기관) Deloitte Digital, VOCALINK³⁾
 - (후원기관) Just Cashflow PLC, Chappuis Halder&Co, Lawson Conner, Temenos, Thomas Eggar LLP, UK Trade & Investment, FinTech Circle, DirectID by miiCard 등 15개 기업
 - (참여기업) 모바일 결제 및 보안기업 등 92개 기업

3) 글로벌 지급시스템 운영사

- (세션 내용)

일 자	시 간	주 제	발표자
12/8(화)	10:00~10:15	행사 기초연설	
	10:15~11:00	새로운 디지털 유저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現금융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Andrew Brem : Chief digital officer at Aviva
	11:00~11:40	Keynote panel : 디지털 시대의 금융서비스 · 핀테크 진화에 따른 소비자 성향 변화 · 기존 금융 모델로부터 핀테크 산업은 어떤 영역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 · 디지털 시대의 금융투자자들의 변화	Roberto Ferrari : General Manager at CheBanca Paul Stoddart : Managing Director of Strategy at VocaLink Susanne Chrishti : CEO of Fintech Circle
	12:00~12:40	Spearheading Innovation: 핀테크 리더 토론 · 핀테크 관련 정책수립자와 핵심 고객으로부터의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 스타업 기업의 성장을 억누르는 기존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	Jeff Lynn : CEO and co-founder of Seedrs Nick Hungerford : CEO of Nutmeg
12/9(수)	13:00~14:00	Panel Discussion: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Martijn van Eck : Founding Partner of Symetrics Ian Green : CEO of eCo Financial Technology
	14:00~15:00	핀테크 산업이 금융 및 사회에 기여하는 점	
	16:00~17:00	Panel Discussion: Convergence innovation - 보험, 디지털 결제, 개인간 거래의 컨버전스	Dr Sebastian Herfurth : Fuounder and CEO, Friendsurance

나. 컨퍼런스 주요 내용

o 기초연설

- ① 현재의 재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요구사항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How will existing financial services business models need to transform to cater for new digital user requirement?)

※ 발제자 : Andrew Brem(Aviva, Chief Digital Officer)

- 참신하고 최신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기술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Building a unique and start-of-the-art user experiece)

- 현재의 재무서비스는 디지털 변환 기술을 통해 새로운 장벽을 구축하여 기존 사용자에게 특별한 영역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The building blocks of digital transformation)
- 기존 금융서비스 기업들의 핀테크 혁명 또는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해 모색 (How will existing FS provider repond to fintech disruption?)

② 금융기관과 스타트업간에 핀테크 혁명과 성장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협력모델은 어떤 것이 있을지? (How collaboration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startups can expedite innovation and growth)

※ 발제자 : Frida Jonsdottir, Fintech Innovation Consultant, Deloitte

③ 디지털 시대의 금융서비스 (Finance in the Digital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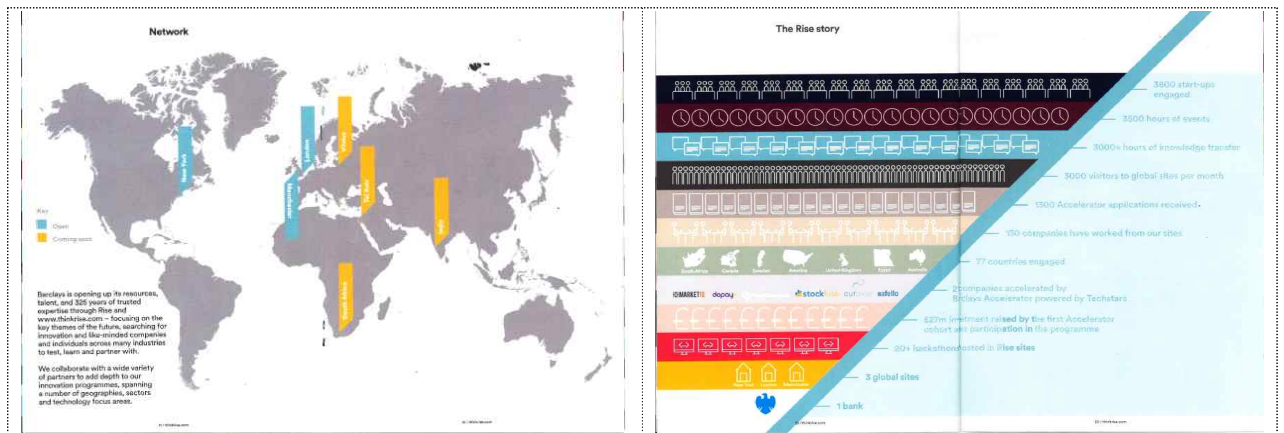
※ 발제자 : Duena Blomstorm, FinTech and Digital Experience Specialist, DB

- 발전된 핀테크 기술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의 금융소비의 행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 (How consumer habits are changing in the face of advanced fintech)
- 전통적인 금융모델의 이전이 어떤 핀테크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특히 소매금융과 소기업금융, 지불 시스템과 화폐관리 등에 대한 변화 추세, 가장 유망한 핀테크 기술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 실시 (Which areas of fintech have already seen migration from traditional banking models? (Retail and SME lending, payment, money management? Others?) Which ones will become most prevalent and why?)

o 참가 주요기업의 핀테크 기술 동향

- ① **(BARCLAYS)** 영국의 제1금융권에 속하는 주요 은행이며, 재무 서비스를 재정의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서비스인 “Rise”를 소개

- Rise란 글로벌 커뮤니티로서 바클레이스에 의해 설계된 오픈형 혁신 서비스로서 미래성장성을 도울 수 있도록 특화된 재무서비스를 제공
- Rise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과, 기존 기업, 혁신기업을 위한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그들이 연결되고 함께 동업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재무서비스에 대한 차세대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함
- Rise가 오픈형 혁신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 : (1) 바클레이스의 혁신가속자(Barclays Accelerator by Techstars⁴⁾), (2) Rise hackathons(top 핀테크 개발자를 가리기 위한 일종의 대회), (3) 글로벌 혁신 대회 (4) Open product sprints (5) Mentor madness events



② (YODLEE) 재무혁신서비스에 대한 플랫폼 제공기업이며, 클라우드 금융데이터 서비스를 소개

- 현재 금융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금융기관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Yodlee는 첫 번째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거래수준별 데이터를 취합하고 정리하여 제공하고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재무환경과 요구사항별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음

4) Techstars란, David Cohen에 의해 설립된 스타트업 accelerator를 양성하기 위한 멤버쉽서비스이며, 뉴욕, 보스턴 시애틀, 시카고, 런던 등에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13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고 있음(신청기업 중 1% 미만의 기업이 선정됨) 2015년 중반 526개 기업이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선정된바 있으며 동 기업들은 총 13억달러의 투자금을 모집하였음



○ 시사점

- 핀테크 혁명은 더 이상 금융회사나 IT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부터 커피체인점, 대형유통업체 등에 이르기 까지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받고 있는 혁명임
- 특히 기존 금융기관들에게는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방식의 변경을 가져올 혁명적인 서비스 개혁이라고 보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가 (영국, 네덜란드 등) 등은 국가차원에서 대규모 혁신을 진행 중임
- 소매금융서비스, 금융거래내역의 클라우드 보관, 지급결제시스템의 변화 등 개인금융 이용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이 가장 빠르고 혁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야임
- 한국도 최근 인터넷금융사를 선정하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노력 중에 있으나,
- 아직 미국, 유럽 등 금융 강국에 비해서는 개인 및 사회적 관심이 적어 정보통신 발전 속도에 비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는 약해 보임
- 따라서, 핀테크 혁명을 금융기업과 통신사의 서비스 융합으로만 보지 않고 산업전반과 개인금융 소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관련 산업(금융컨설팅, 금융산업 재편,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의무 확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시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또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다만 유럽 국가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 문제의식 있으나 기존 금융서비스에 비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다고 보여짐
- 기존 전통금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금융정보에 대한 해킹 등 보안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나 핀테크 산업 확대에 따라 기존 보안시스템보다 더 정교해야 한다는 입장보다는 정보관리와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보안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강하다고 보여짐

o 특이사항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FinTech Connect Live 2015 행사 관련 사진 >

	
FinTech 기조연설	FinTech 전시회 관람

6. Hessischer Rundfunk(헤센방송국)

가. 개 요

- o 방문일시 : '15. 12. 10.(목) 15:00~17:00
- o 방문기관 : Hessischer Rundfunk
- o 주 소 : Bertramstraße 8, 60320 Frankfurt am Main
- o 면 담 자 : Sebastian 홍보실 과장
 - 연 락 처 : +49 (0) 69 155-3119
- o 주요내용
 - 독일 공영방송 정책 현황 및 재정사항
 - 헤센방송국 재원구조 및 조성, 관리체계 등 논의

나. 방문 결과

- o 헤센방송국 및 독일의 공영방송 제도 소개
 - 헤센방송국은 독일의 9개 지역 공영방송사 중 하나이며, 방송 평의회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방송평의회는 사회 각계각층(정당, 주정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헤센방송국에서는 최고책임자가 드라마, 교양 등 편성비율을 결정 하고 있으며, 재정의 85%를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음(광고는 재정의 5% 정도 점유)
 - 가구당 월 수신료는 17.5유로로, 수신료는 각 가구에서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기기마다 징수하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미디어기기를 통한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구별 징수로 변경

- 독일은 9개의 지역 공영방송사가 있으며, 이들이 만든 협회가 ARD (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며 ARD도 TV방송채널을 보유하고 있어 ARD에서 만든 뉴스를 9개 방송사에서 동시 방영을 하는 등 협력
- ARD 이외 ZDF(Zweites Deutsches Fernsehen)라는 공영방송사도 있음
- 헤센방송국은 ARD와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제작도 많이 하고 있으며, 해외 특파원은 ARD에서 대표로 나가고 있음
- 공영라디오에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진행자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없고, 사실관계의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음

o 질의 및 답변

- 독일의 방송 관련 규제에 대해 간략한 설명 요청
 - ☞ 기본적으로 독일의 방송 규제는 기본법 제5조에서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방송 및 필름에 의한 보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 권리와 방송 보도의 자유 확보를 보장함
- ARD를 구성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어디가 있는가?
 - ☞ ARD에는 9개 방송사(BR, HR, MDR, NDR, Radio Bremen, RBB, SR, SWR, WDR)⁵⁾가 등록되었으며 독일공영방송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독일 수신료 산정 기구에 대한 설명요청
 - ☞ 독일에는 KEF(방송재정위원회)라는 독립위원회가 공영방송 재정 상황 조사, 수신료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독일 16개 주정부에서 1명씩 위촉하는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됨
 - 16개 주에서 KEF 위원도 추천하면서, 방송사에 지원할 재원도 같이 보내게 됨

5) BR(바이에른 방송), HR(헤센 방송), MDR(중부독일방송), NDR(북독일방송), Radio Bremen(라디오 브레멘), RBB(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방송), SR(자를란트 방송), SWR(남서독일방송), WDR(서부독일방송)

- 수신료 비중이 다른 공영방송사의 경우는 어느 정도?

☞ ARD를 비롯한 9개 지역 공영방송사 모두 수신료 비중은 85%로 같으며, 자금이 더 필요한 경우 KEF에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음

- 헤센방송국은 광고가 있는지?

☞ ARD는 저녁 8시 이후 광고를 방영하지 않으며, 헤센주 방송국은 TV 광고가 없음

- 공영방송에서 광고를 거의 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업들은 광고를 주로 어디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미디어광고판매대행기관이 있는지? 협찬이나 공익광고는?

☞ 기업들은 광고를 상업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으며, 미디어 광고판매대행기관은 없음. 공영방송은 협찬이 금지되어 있고, 공익광고도 거의 없음

- 헤센방송국의 재원확보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 헤센방송국은 국가나 정치권, 정당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헤센방송국의 재원의 대부분 (약 95%)은 TV수신료로 이뤄짐

- 상업방송국에는 수신료 지원이 없는지?

☞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에만 지원되고 상업방송사에는 지원되지 않음

- 한국은 라디오 청취율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독일은?

☞ 독일은 라디오 청취율이 높은 편이며, 테마별(음악·뉴스 등) 채널과 젊은 층을 위한 채널 등 다양한 라디오 채널이 있음

- 시사, 토론, 뉴스 등과 관련하여 공정성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 정치토론의 경우 공정성 관련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방송 평의회에서 민원에 대해 1차적으로 확인·검토하고, 민원제기한 사람에게 직접 결과를 알려줌

- 방송평의회 의장 선출 방식과 위원을 보좌하는 기관이 있는지?
- ☞ 방송평의회 의장은 평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감독조정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모여서 의논
- 수신료 징수 방법은?
- ☞ 맨 처음 납부시에는 직접 신청해서 납부해야하며, 이사를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등록하면 바로 연결되어 납부 가능
- GEZ라는 기관에서 수신료 징수 대행을 하고 있으며, 세대주 단위로 수신료를 내고 있음

o 시사점

- 수신료 산정을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등 수신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음
- 독일의 공영방송의 경우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정부나 기업 등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이 높음
- 수신료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하여 참고할 사례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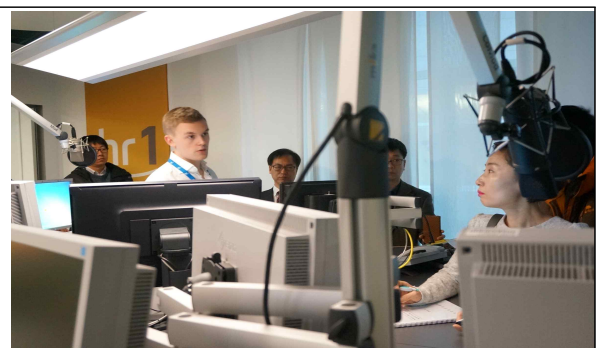
o 특이사항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Hessischer Rundfunk방송국 방문 관련 사진 >



방송국 현황 설명 및 면담



방송국 시설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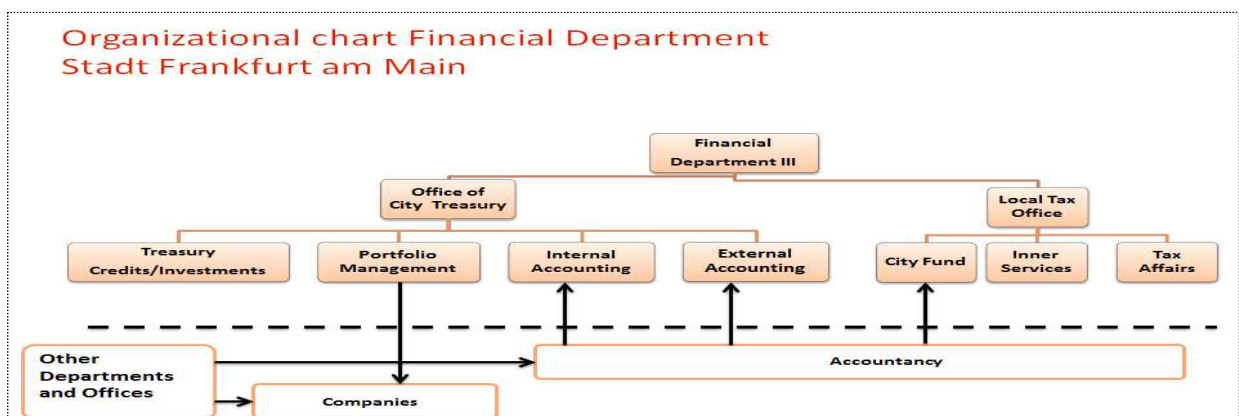
7.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재정행정부 방문

가. 개 요

- o 방문일시 : '15. 12. 11.(금) 10:00~12:00
- o 방문기관 :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재정행정국
(Stadt Frankfurt am Main Financial department)
- o 주 소 : Römerberg 23, 60311 Frankfurt am Main
- o 면 담 자 : Dr. Thomas Rautenberg(재정국 국장)
 - 이메일/연락처 : alexandra.becker@stadt-frankfurt.de / 069-212-33499
- o 주요내용
 - 프랑크푸르트 시의 재정운영방식 및 수입/지출 구조
 - 재정의 공기업 투자 현황 및 투자금 회수 방식을 비롯한 프랑크푸르트 시의 재정운용 절차 및 업무 등 파악

나. 방문 결과

- o 프랑크푸르트시 소개 및 시 재정운용 현황
 - 프랑크푸르트 시 재정국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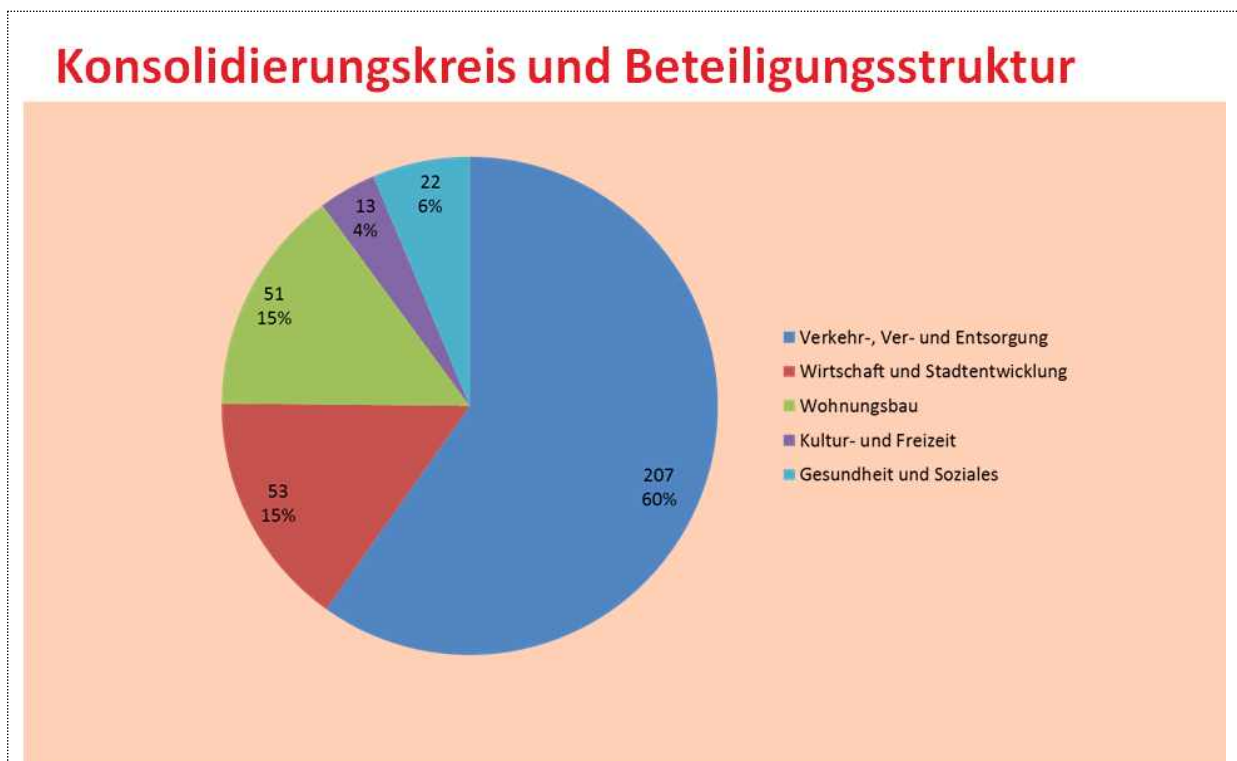
- 프랑크푸르트 시 현황

- 인구 70만명, 경제활동 인구 64만명, 기업 수 60,500개, 생산규모 550억유로
- 생산규모로 보면 독일 2위(1위는 Wolfsburg⁶⁾), 특히, 경제문화 관련 투자규모로 독일 1위(2010~2013)
- 65세 인구비중이 프랑크푸르트는 16.3%(Baden-Baden 26.7%)
- 박람회 개최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입 및 투자가 있음 (주요 박람회 기업으로는 IAA, light+building 등이 있으며, 2012년말 현재 41,800개 박람회 기업, 35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음)

- 프랑크푸르트 재정 특이사항

- 공공서비스 등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기업투자 배당금 수입을 시 재정으로 환수하고 있으며, 기업투자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임

< 프랑크푸르트 공공투자 분야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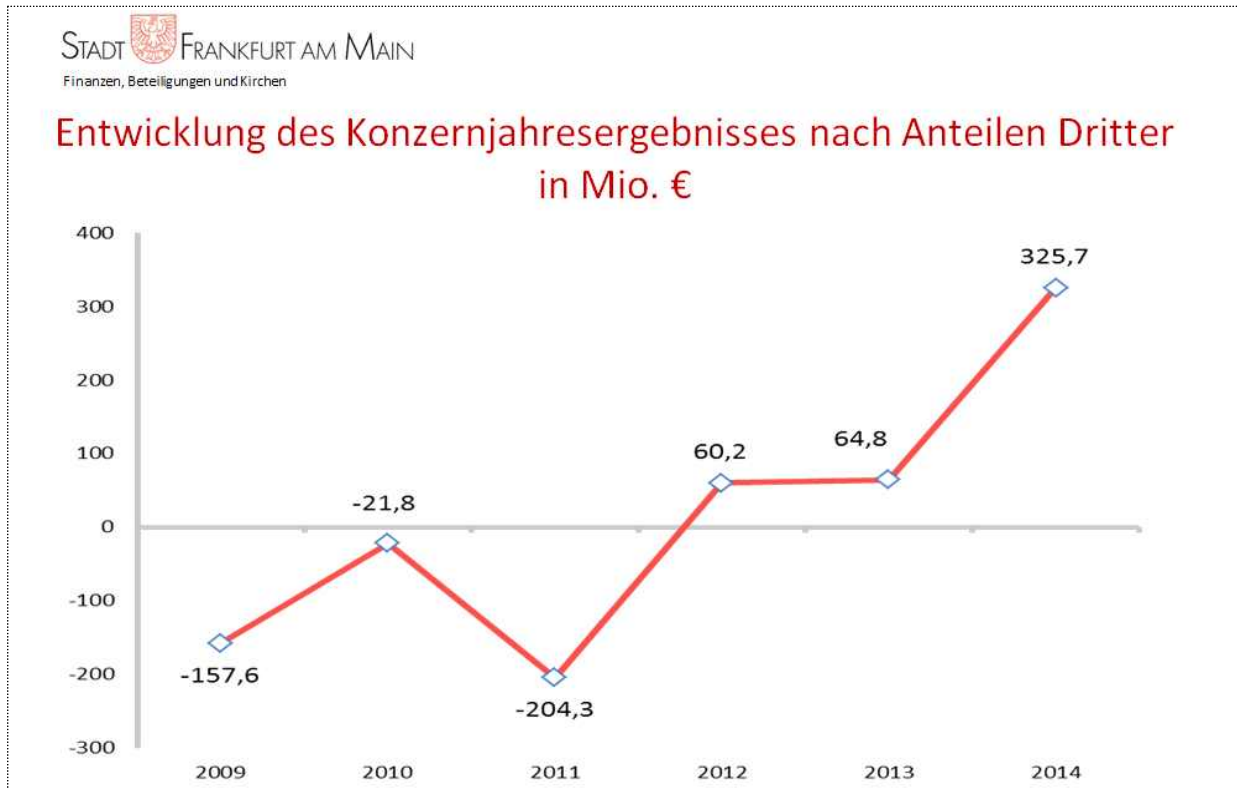


- 운송업(60%), 경제 및 도시개발(15%), 주택(15%), 문화 및 여가(4%), 건강 및 사회서비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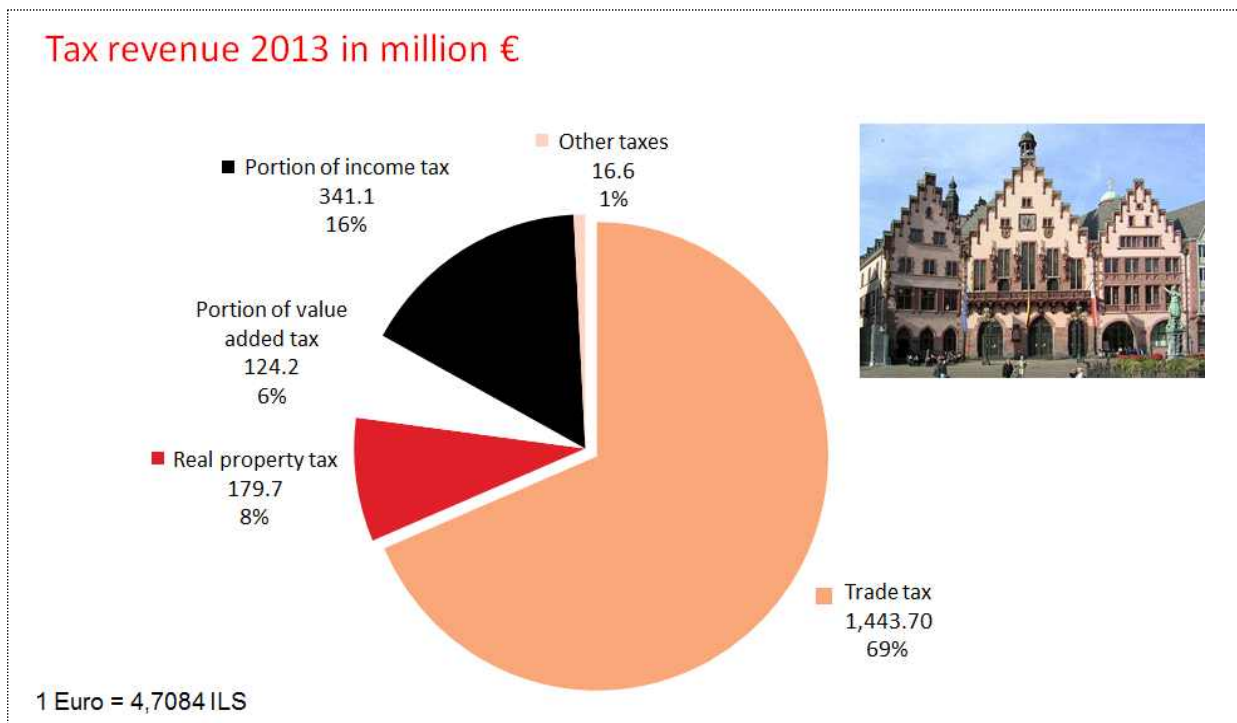
6) 독일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도시임

- 특히 최근 기업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순수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여 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 프랑크푸르트 시 연도별 투자 당기순이익 〉



- 프랑크푸르트의 세입 구조(2013년)



o 질의 및 답변

- 프랑크푸르트시는 문화분야 투자규모가 크다고 했는데, 어떤 부문에 대한 투자가 많은지?

☞ 시 전체에는 11개 박물관과 많은 미술관이 있음. 이러한 박물관 및 미술관 유지를 위한 비용이 소요되며, 오페라 극장도 2군데가 있어 연간 6천만 유로의 비용이 소요됨

- 프랑크푸르트시가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주요 기업 중 주요분야 및 투자에 대한 효과는?

☞ 교통 및 미화업 기업에 60%를 투자하고 있으며, 15%는 주택 보급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또한 지분의 60%이상 참여하는 곳은 15%이고,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

400여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09년 157.6백만유로 순손실에서 2014년도에는 325.7백만유로 순이익을 얻었음

주로 공공서비스 기업(전력, 가스, 온수, 박람회, 대중교통 등)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박람회 기업 배당액은 연간 6백만유로 임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기업참여가 활발한 도시에 속하며 공공기업의 기업서비스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었음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차이점은?

☞ 직접투자는 회사의 지분을 50%이상을 확보하여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간접투자는 50%이하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

- 프랑크푸르트시에서 투자하는 기업 선정에 어찌하는가?

☞ 기본적으로 공공재 성격인 사업에 투자를 하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하고 있지 않음

- 프랑크푸르트시의 연평균 예산은 얼마인지?

☞ 평균 33억 유로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세출이 세입보다 많아질 경우 어떻게 하는지?

☞ 비경직성 경비를 활용하는 사업을 모두 중단하여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며 세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영업세 추세가 일정치 않아 세입산출의 어려움이 있음

- 세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을 경우 유보금 형식으로 처리하여 차년도에 활용하는지?

☞ 별도 유보금 형태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기업에 투자함

- 프랑크푸르트 시 및 독일의 재정구조의 특징은?

☞ 거래세(Trade Tax) 비중이 높은 편으로 거래세는 기업의 이익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서 시에서 예산을 짜는데 불확실성이 높은 세금임

독일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2014년 기준 예산 및 지출이 동일하여 균형재정을 이루었으며 2015년도에는 예산이 지출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구조가 건실화되고 있음

- 프랑크푸르트시와 방송국간의 재정적 연관성이 있는지?

☞ 독일은 연방, 주, 시 사이에 독립적으로 재정이 분리되어 있으며, 방송국의 경우 헤센주 소속이기 때문에 시와는 연관성이 없음

o 시사점

- 독일은 주 및 시별로 재정이 분리가 되어 있어 주별 및 시별 재정구조가 매우 상이한 특징이 있음. 방문한 프랑크푸르트 시는 기업 수가 65,000개 이상으로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 및 지분투자를 통해 배당수입이 높은 편임

- 특히, 공공서비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기업의 효율화로 이익을 창출하는 등 정부-기업간 협력모델에서 우수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 공기업 민영화로 영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등 부작용이 있는 반면, 독일은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요금도 안정적이고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은 편임
- 다만, 독일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공공서비스 기업 투자에 대해 호의적이며, 과거에는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정부-기업간 노력으로 최근에는 이익이 나고 있고 서비스 수출로도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정부 재정을 세금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도 공기업 투자 및 배당수익 실현을 위해 공기업 효율화 및 공공서비스 개혁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특이사항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프랑크푸르트 시청 방문 관련 사진 >



프랑크푸르트 시청 회의



회의 후 인사

8. Koeln Media Park(켈른 미디어 파크) 방문

가. 개 요

- o 방문일시 : '15. 12. 12.(토) 10:00~11:00
- o 방문장소 : 독일 쾰른시 미디어 파크
- o 주요내용
 - 독일의 미디어산업단지의 조성현황 및 활용실태 확인

나. 방문 결과

- o 미디어파크 현황
 - 미디어파크는 화물역으로 쓰이던 땅을 고부가가치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복합공간으로 2004년에 완공되었으며, 약 20ha의 면적에 미디어와 통신, 문화 산업 단지과 주택이 들어서 있음
 - 단지에는 1Live와 라디오 쾰른(Radio Koln)의 스튜디오, EMI MUSIC 독일 본사 등 독일의 약 250여 개 첨단 산업 분야 회사들이 단지에 입주해 있으며
 - 멀티플렉스 극장과 문화 재단, 전문대학, 기자 학교, 호텔과 병원, 음식점 등이 있어 단지 내에서의 독립적 생활 가능
 - 현재는 M&A 등으로 성장한 일부 대형 미디어 기업들이 미디어 파크를 떠나 자체방송국을 마련하기도 함
- o 시사점
 - 독일이 미디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미디어파크를 조성한 과정뿐 아니라 대형 미디어기업이 미디어파크를 떠난 후 활용실태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일산 빛마루나 상암동 DMC 등 미디어 단지의 향후 활용계획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특이사항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미디어파크 방문 관련 사진 >

	
미디어파크 방문	미디어파크 방문